

불서광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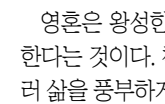
화두는 나의 전 재산이다. 오세암의 달밤 | 불국경관 스님 | 부다가야 펌냄 | 1만1000원, 1만2000원

정관 스님이 두 권의 선서(禪書)를 출간했다. 언제나 화두를 밝히, 허공과 같은 따뜻한 아늑 다라삼막삼보리의 세계를 말하는 <화두는 나의 전 재산이다>와 설악산 오세암을 비롯해 국내외 순례 길에서 느낀 선지식의 세계를 말하고 있는 <오세암의 달밤>은 모두 禪의 세계를 말하며, 삶을 어떠한 마음으로 걸어가야 하는지를 알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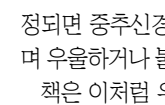
영혼을 위한 휴가 | 알라워커 지음, 박인희 옮김 | 지혜의 나무 펌냄 | 1만2000원

“매일 똑같이 굴러가는 하루- 지루해 난- 기지개만 켜-.” 어느 유행가 가사에서도 나오듯 매일 반복적으로 흘러가는 하루는 일탈을 꿈꾸게 한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몸이 고달픈 것인지, 영혼이 고달픈 것인지 혼돈이 될 때가 있다. 이 책의 저자는 단순한 몸이 아닌, 영혼에게 휴가를 줘야 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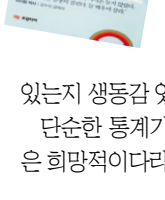
오픈포커스 브레인 | 레스 페미 지음, 이석희 옮김 | 정신세계사 펌냄 | 1만2000원(오디오CD 포함)

책이 말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모든 것을 좁은 주의가 아닌 넓은 주의로 바라보라는 것. 뇌파 바이오피드백 분야의 선구자이자, 심리학자인 저자는 뇌파를 연구하던 중 중환자에 대한 감각적 상상과 경험이 두뇌의 전 부위에서 알파파의 진폭과 지속시간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뇌파가 알파파 수준으로 안정되면 중추신경계가 편안하게 이완된다고 말한다. 즉, 기분이 새로워지고 맑아지며 우울하거나 불안한 마음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행복의 조건 | 조지 베일런트 지음, 이시형 감수, 이덕남 옮김 | 프런티어 펌냄 | 1만9000원

행복의 조건 | 조지 베일런트 지음, 이시형 감수, 이덕남 옮김 | 프런티어 펌냄 | 1만9000원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 | 고운기 | 현암사 펌냄 | 1만3800원

2002년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를 출간해 <삼국유사> 열풍을 일으켰던 저자가 또 한 번 <삼국유사> 읽기 바람을 불러 일으키기에 나섰다. 책은 <삼국유사>에 비문으로만 남아있던 일연의 일대기를 복원해 총 3부작으로 꾸며졌다. 그 첫 번째인 <도쿠가와가 사랑한 책>은 <삼국유사>를 두고 벌어진 한일 두 나라의 숨은 이야기가 펼쳐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는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삼국유사>가 같은 시대에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생생하게 들려주며, 한 권의 책이 유통된 과정을 치밀하게 추적하는 내용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하다.

현대불교 독자가 읽은 이 책

조용한 행복

한 오두막 수행자의 수행일기

어느 새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집안에서 씨름하면서 한 해 계획을 세우는 등 마는 등 하고 새해를 시작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달력은 2월로 넘어가 있다.

하루하루 날짜가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고 산 셈이다. 점점 심해지는 건망증과 매사에 의욕도 없이 시간만 죽이고 있으니 정신 좀 챙기라고, 도현 스님의 산중편지가 인연이 되어 내게 모양이다.

도현 스님의 <조용한 행복>은 25년 동안 선재 가족도현 스님을 지도법사로 알음알음 만나던 이들이 '선재회'라는 이름으로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다에게 보낸 편지들로, 일반인들이 읽고 수행의 가르침을 배울 수 있는 64편의 글을 추려서 만들었다. 이 책은 한 오두막 수행자가 살아온 외길 인생을 정리한 수행일기이자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깨달음의 메시지다.

도현 스님은 하늘 아래 첫 동네로 손꼽히는 화개계곡 의신마을에서도 한참을 걸어 들어가기야 하는 외진 곳에 산다. 흙과 짚을 이용해 직접 지은 세 평짜리 오두막에서 16년째 홀로 수행하고 있다. 15세에 출

가해 승려 생활 45년 동안 세상에 드러나지 않던 스님의 맑고 따뜻한 글들을 읽다 보니 문득 송광사 불일암이 생각난다. 너

로 돌아온 기본이다. 스님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 스님이 되는지 궁금했던 나 같은 사람이나 무슨 재미로 중노릇하는지를 전혀 짐작할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친절을 베푼다.

“사람이 나고 늙고 병들어 죽어야 하는 이 일대사인연의 근원적인 물음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영원한 자신의 모습을

찾아 편안한 마음으로 인연의 섭리를 따르려는, 본질적인 인생의 문제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스님들이다. 먹고사는 일과 세속적인 가치 추구에 조금은 무딘 사람들, 세속적 행복의 필수 조건인 돈, 명예, 사랑, 건강, 여가 등을 이차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곧 도 닦는 스님들이다.

스님들 양식은 짙로 지은 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쑥이 잠자던 내 불심을 깨우고, 살면서 어떤 지런 세상사가 힘을 잃을 때 흔들거림이 될 것이다. 스님의 글은 어렵지 않고, 현실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도 않다. 오히려 생업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면의 자신을 챙길 수 있는지 자상하게 알려준다. 수행이라는 것이 어느 먼 산속이나 선방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업에 몰두하면서도 순간순간 자신을 챙길 수 있는 법을 스님은 강조한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남과의 비교우위에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 밖에서 행복을 찾지 말라는 가르침이 마음을 따뜻하게 한다.

조용한 행복 | 도현 지음 | 들 | 1만3000원

강지숙 / 서울 상계동에 산다. 초등학교 4학년, 1학년 남자아이를 키우며, 세상 일에도 관심이 많은 주부다.

‘자축인...’ 십이지가 궁금하다면?

중국·일본 십이지도 비교분석 ‘십이지의 문화사’

‘자축인 묘진 사오미...’ 어느새 외우다 보면 숨이 턱까지 차버리는 십이지는 한해가 바뀔 때쯤 돼서야 한 번씩 그 의미를 되새겨 보게 된다. 사람들은 한 해가 시작될 때쯤이면, 그 해가 어느 때의 해인지 따져보며 한해를 점쳐거나 그 동물이 상징하는 좋은 의미를 찾아 행복을 기원한다.

이처럼 십이지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이미지와 여러 가지 설들로 사람들에게 친숙해져 있다. 하지만 이런 십이지가 얼마나 방대하고 심오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저자는 이미 여러 권의 책을 통해 다양한 한국의 미술에 대해 말해온 전문가이다. 이런 저자가 이번에는 십이지를 제대로 소개하고자 나섰다.

십이지의 기본 개념, 십이지 문자의 기원과 의미, 십이지 동물의 상징성, 한국 십이지 미술의 전개 양상 등 십이지와 관련된 모든 부문에 걸쳐 십이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망라하며 십이지에 대해 말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의 십이지와의 미술 경향이 우리나라와 어떻게 또 다른지 알아볼 수 있어 십이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두루 알 수 있다. 즉, 십이지와 십이지 미술의 총서 격이다.

자 한국성미술연구회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저서로는 <사찰장식, 그 빛나는 상징의 세계>(돌베개) <한국의 정원, 선비가 거닐던 세계>(다른세상) <전통문양>(대원사) <사찰 100美100選>(불교신문사) <사찰장식의 품과 美>(다람쥐)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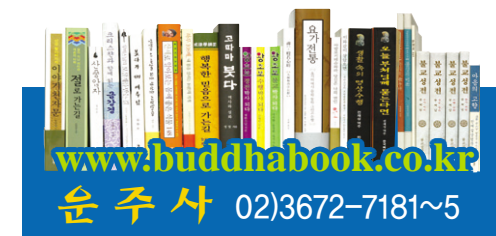
십이지의 문화사(허균 지음)돌베개 펌냄 | 1만2000원

이은정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Lists top 10 Buddhist books for the week.

*불서출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www.buddhabook.co.kr 운주사 02)3672-7181~5

Advertisement for 'Banggyeosa Eorok' (Banggyeosa's Footprints) by Daewon Munjaehyun. Includes a photo of the author and promotional text.

Advertisement for 'Himalaya Hengseon Trekking' (Himalaya Hengseon Trekking) with Yongbong Sunim. Includes details about the trekking trip and contact information.